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7월 인욕의 달

- 기꺼운 불편 감수
- 탐욕과 성냄 다스리기
- 하심과 관용
- 인욕 통한 몸·마음의 해탈

기꺼운 불편 감수



◇모든 수행의 필수요건인 인욕(인욕)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린이들에게 사찰수련회는 인내심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다.

입시철 등 각종 기도원은 물론 연중 참배객들로 붐비던 불이 없는 대구 팔공산 약사여래도량. 일명 '갯바위 부처님'도량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간혹 자티 다름이 벌어진다. 부처님이 마주 보이는 앞 자리나, 햇빛이 가려지는 장소에 기도객들이 몰리다 보니 사소한 언쟁이 있게 마련. 하지만 우연히 이곳을 방문하는 불자들은 참배객들의 이런 모습이 의아스럽기만 하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기도성지에서 그것도, 힘겹게 쌀을 머리카 등에 지고 올

게 이익을 주거나 칭찬하면 즐거워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모욕을 주면 화를 낸다. 불교에서는 이런 범부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娑婆世界)라 한다. '사바'는 의역(意譯)하면 인토(忍土)라는 뜻이다. 즉 이 세상은 인내를 강요하며, 인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니, 도를 행함에 있어서 인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라와 정성을 더해 막 기도를 하려는 참나에..." 가장 성스러워할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자답지 않은 행태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복불교의 이기적인 신행의 모습은 아닌지, 기도성지나 대법회장 등 불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런 광경은 불제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되돌아 보게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장마철의 후덥지근한 습기가 더욱 짜증을 자아내는 계절이 다가왔다. 사소한 언쟁이 말다툼으로 변하고 급기야 주먹질이 오가기 쉬운 이 때 한 번 침은 마음,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다(법구경)고 싶었다. 인욕행이란 이렇게 범부들에게 일어나는 모욕이나 고통, 빈뇌 또는 박해를 능히 견디고 참아서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평안하게 해 자기 본래의 면목을 밝히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이를 간곡히 권했고, 육바라밀 수행의 필수요건으로 강조하셨다. 불자라면 내가 먼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배려심부터 기르자. 참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개인과 가정은 항상 평화롭고 화목하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인욕행을 실천한다면 개인적인 수행의 진보는 물론 선진 시민의식을 키우는 보살행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김재경 기자

- 7월 10일 (수)
- 광주 의재미술관 '전시회' = 초의선사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불교 이해를 바탕으로 추사체를 창안한 추사 김정희. 부국문화재단이 31일까지 추사와 그의 지인들의 작품을 모은 '완당과 완당바람-추사 김정희와 그의 친구들' 주제의 전시회를 마련한다. 소천 허련, 석파 이하응과 중국학자 옹방강, 안원 등의 문인화 40여 점을 통해 동양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062)222-3040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아동영화 상영회' = 보노보노, 신데렐라, 아더왕의 집... 용호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어린이 극장' 시간을 통해 아

- 신행 캘린더
- 동영화를 상영한다. 다양한 아동용 만화영화 감상용 통해 꿈과 환상의 나라를 활짝 펴 보자. (051)628-6737
 - 7월 11일 (목)
 - 불교환경교육원 '무공해 정보기' 행사 = 불교 신행은 청정국토를 가꾸는 일부터... 불교환경교육원이 오후 3시 서울 홍제시장에서 '쓰레기제로 1080운동' 실천을 위한 정보기 행사를 마련했다. 완전 분해에 5백여 년이 소요되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장보기, 이번 행사에서는 비닐봉투 대용 투명망과 방수망의 홍보 및 판매도 함께 이뤄질 예정

- 이다. (02)587-8997
- 7월 13일 (토)
 -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 = 불교학연구회가 13-14일 예산 수덕사에서 '명상과 불교수행' 주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수덕사 선원 무애스님과 보리수 선원 붓다락기타스님이 직접 간화선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할 예정. '간화선의 이론' '염불선의 이론과 실수' 등의 논문 발표도 함께 계획돼 있다. 누구나 참여해 불교수행법을 배워볼 기회. (02)2260-3128
 - 용진신행회 '성지순례' = 지리산 법계사와 검의사를 찾아서... 용진신행회가 적멸보궁 법계사에서 철야 정진기도를 올리고 성철스님의 생가터에 세워진 곱

- 외사를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갖는다. 출발은 오전 7시 서울 을지로 5가. 참가비는 4만 5천원. (02)2279-1191
- 7월 14일 (일)
 - 천불사 대법회 = 천안 천불사는 오전 11시 천불전에서 법주사 을주해정스님 초청법회를 갖는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선·교·율의 수레바퀴를 잘 굴릴 때 이 땅이 청정국토가 될 수 있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람직한 신행이 무엇인지를 배워보자. (041)557-3223
 - 신라문화원 '경주문화기행' = 석장동 암각화, 정혜사터 13층석탑,

- 독락당, 옥산서원, 흥덕왕릉... 신라문화원과 함께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누벼보자. 오전 9시 신라문화원에서 출발하는 이번 행사는 신라문화원 최민희 전문위원의 안내로 진행된다. 회원 1만 3천원, 비회원 1만 5천원. 학생은 1만원. (054)774-1950
- 7월 15일 (월)
 - 육수종합복지관 '요가강좌' =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육수종합복지관이 현대인의 건강 지키기를 위한 요가강좌를 15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한다. 매주 월, 수요일 오전 10~11시 1대1 강사지도를 통해 요가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 참가비 4만원 (02)2282-1100

소외된 이웃에 사랑 베푸는 불자

우리 절 우리 신도

군산 성흥사 강근자 신도회장



◇강근자(오른쪽에서 두번째) 신도회장과 성흥사 불자들이 무료탁거노인 무료급식을 위해 군산나온종합복지관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

"불자라면 당연히 나보다 남과,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죠. 주위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고서 어떻게 불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군산 성안면 성흥사 신도회장 강근자(61 법명 청정심) 보살은 스스로에게 늘 다짐한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불자가 되겠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념적 지식으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에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에서다. 청정심 보살의 이같은 생각은 신도회 운영 방침으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성흥사 신도회는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불자 개개인에게는 믿음의 사회적 실천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적으로는 포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고 잘 꾸며놓았다고 해서 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하면서 포교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찰이 진정으로 큰 사찰이 아니겠습니까." 청정심 보살은 외형적 불사에 치우쳐 사회 회향에 뒷전인 일부 사찰의 행태를 꼬집

며,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포교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역 불교가 타종교의 수적 우위에 가려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정심 보살은 중심으로 돌돌 뭉친 신도회의 자비행은 군산 지역 포교의 단비가 되고 있다. 청정행 보살은 99년 성흥사 주지 송월스님을 따라 군산교도소 재소자 법회에 참석한 후 사회 봉사에서 나서기 시작했다. 재소자 불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대하고는 꺼림직한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았던 자신이 부끄러워 참회의 기도를 수도 없이 올렸다. 93년부터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일에도

해 신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도회장에 선출된후부터 청정심 보살은 소년소녀가장 돕기와 교도소 재소자 위안법회 등에 체계적인 운영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개신교에

군산 재소자법회 참석후 사회봉사 본격 독거노인 급식·소년소녀가장 돕기도

적극 나섰다. 2000년 11월, 청정심 보살은 신도회장이라는 소임을 맡았다. 법회 때마다 매번 법당 청소와 공양 준비,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신도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결과였다. 신도회 김미숙 총무는 "청정심 보살의 솔선수범이 체적과 같은 역할을

서 운영하는 군산나온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무료탁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급식도 시작했다.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무료탁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직은 무료 급식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청정심 보살은 이를 정례화

하고 직접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는 등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청정심 보살은 송월스님과 신도회가 지원하고 있는 군산 임피면 자광노인대학에서 불가 기공 선체조 실습 조교로도 활동하고 있다. 선체조 조교가 필요하다는 스님의 얘기를 듣고 '이것도 회향이다' 싶어 지원했다. 신도회장이 직접 조교로 나서자, 노인대학 어르신들의 강의 참석율도 부쩍 높아졌다.

추천의 말

송월스님 성흥사 주지



92년 처음 부임했을 당시 성흥사는 쓰러져가는 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찰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지요. 맨손으로 시작한 불사였습니다. 강근자 회장은 이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법회가 있는 날이면 남보다 먼저 절에 와 법당을 청소하고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법당 불사 때는 솔선수범하며 신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신도회장 소임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신도들의 작은 일까지 함께 나누는 자상함이 성흥사를 단결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일에 헌신적인 강 회장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신심으로 신도들의 사표가 되는 강 회장의 모습이야말로 참불자가 지녀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어 고마운 마음 가득 합니다.

정심 보살의 자비행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가정에 소홀할 법도 하지만 늘 충실한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인 청정심 보살에게 가족들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군산=박병영 기자

법안명상기공지상강좌
번역국판, 72쪽, 값: 8,300원
가공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련안내서.

1 **만국역리학**
보덕 지음

3 **심정화사**

만국역리학
신국판, 112쪽, 값: 6,300원
역의 원리를 통달해 9종 역리를 청안하고 국민의 운세를 그 나라의 말과 글로 푸는 9종 운세 풀이서.

6 **이름운세풀이**
신국판, 160쪽, 값: 7,200원
이 책을 보고 자신의 이름과 상호의 운세를 풀어보세요.
※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 1차전 승리 예상 적중 69쪽

8 **심정화사**

색즉시공시색
신국판, 112쪽, 값: 5,400원
시와 경과 사진의 조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깨달음의 조화.

중형무진
신국판, 192쪽, 값: 6,800원
창조적 지혜로 현실을 바로보고 진실을 알려주는 21세기 지성인의 교양서

심정화사

심정화사
21세기를 맞아 세계인이 함께 보는 **이름운세풀이**

심정화사